

구세주의 오심

세례요한과 예수님 탄생	1장
	2장

구세주의 행동

사역 준비	3장
갈릴리 순회사역	4장
기적과 가르침	5장
제자 선택 후 가르침과 기적	6장
제자파송, 베드로의 신앙고백	7장
변화상 변화	8장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기적	9장

구세주의 말씀

첫 몇 주간	10장	예루살렘으로
70인 파송, 선한사마리아인	11장	
바리새인 경계, 부자비유	12장	
예수님의 슬픔	13장	
최후의 몇 일간	14장	
갈릴리사역, 여인 고침	15장	
사마리아, 문동병자고침, 가르침	16장	
여리고, 소경 고침, 삽개오 가르침	17장	
예루살렘 입성, 예수의 애가	18장	
	19장	예루살렘 입성

구세주의 나아가심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20장
	21장
수난이야기	22장
	23장
부활, 약속, 승천	24장

누가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18 5번째 |

누가복음 14-17장

- 눅 15:7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뙄 15:20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뙄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 ③ 죄인들

누가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죄인들의 복음’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gospel of sinners,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W. E. Pilgrim, Good News to the Poor]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복음서 보다 부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인 편견, 잘못된 행실, 직업, 범죄 등으로 소외되거나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5:27-32, 7:36-50, 10:29-37, 17:11-19, 18:9-14, 19:1-10)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18:14). 공동체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은 양,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15:1, 4).
 예수님은 편견의 장벽을 넘고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5:30-32)
 용서와 자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투명인간 취급받던 여인에게 말 걸어 주신 분입니다(7:39).
 그녀의 모든 과거, 남들이 정죄하던 ‘나’와 자신이 정죄하던 ‘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7:50).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23:34). 십자가에 함께 달린 행악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23:43).

그러나 예수님의 죄를 묵과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치료’ 받아야 할 ‘환자’입니다(5:32).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15:18).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요일1:9)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5:8).”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피폐한 삶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회개悔改, 12:2, 8:17, 16:31).

하나님은 잃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15:11-32).

탕자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으로 새 출발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만 가능합니다(15:20).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 가니라(15:20).”

죄인들의 구원받음은 곧 공동체의 구원받음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죄인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 지인, 공동체의 상실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죄인들의 참된 회개로 공동체에 치유가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죄가 그칠 때 공동체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형제를 거듭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17:3-4).

삭개오나 세리들이 구원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의 가련주구로 피폐했던 백성들의 삶에도 구원이 찾아옵니다.

악독했던 니느웨가 회개할 때(욘1:2, 3:1-10) 주변국과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의 가정은 비로소 ‘온전한 가족’으로 회복됩니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두드려 주고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참된 화해는 끔찍함, 학대, 고통, 타락, 진실을 드러낸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는 위험한 시도이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음이 드러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결할 때만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비 화해에는 사이비 치유만 뒤따른다.

용서하라는 말은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진학 행위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용서는 자신이 당한 일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다.

벌어진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과소평가 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 속에 숨어 우리의 전 존재에 해를 끼칠지 모를 위험한 독침을 빼내는 일이다.

용서는 감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에게 양깊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지만,

피해자는 복수할 권리를 내주는 대신 자유를 얻는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데즈먼드 투투

* 공관복음서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 주석,
성서유니온 LABC(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IVP BST (Bible Speaks Today)